

● 국산약용작물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이모저모

# “한약품질인증제 언젠가는 가야 할 길”

## 생산자단체 중심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 필요

지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생약협회 임원들은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 김주영사무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서호석사무관이 함께 한 가운데 ‘국산한약재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농림부 서호석 사무관은 농림부가 지난 2003년부터 추진중인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추진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웰빙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서 사무관은 “증산과 생산성 향상을 우선으로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농림부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농림부가 추진 중인 GAP 약용작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농가자가규격 폐지하고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품질인증은 불합리

문) 국내 제조업소들의 경우 오히려 문제있는 수입약재들의 국내반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자체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통관시 검사가 생략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농가자가규격은 폐지하면서 제조업체를 통해서 생산된 것만을 품질인증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답) 그렇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수입산과 비교해 정말 경쟁력있는 품목만을 선별해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의해 생산 가공해서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식약청에서 표준제조공정을 만들어 제조



업소로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한방병의원에서의 규격품사용도 의무화할 것이다.

법적근거 없는 농가자가규격은 폐지하고, 품질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소한의 표준제조공정에 의해 제조업소가 가공하고 2010년까지 가능한 품목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약재의 표준제조공정을 다시 만들고 있다. 다빈도 품목과 아빈도 품목을 골고루 섞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어쩌면 제조회사가 수입과 국산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많다. 국산은 생산자단체나 조직 단위로 제조업허가를 내서 관리하고, 수입은 기존 제조업소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수입품 제조업소는 향후 중국으로 나갈 전망이다. 중국 현지에서 제조업소 공장을 만들어 현지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들여오는 상황이 곧 올 것이다.

### 한약품질인증제 시기상조 아닌가?

문) 한약유통실명제, 우수한약 품질인증제 다 좋지만 생약농민의 국내 생약농업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좋은 제도도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갈수록 생약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농촌현실 속에서 그러한 규제는 시기상조 아닌가?

답) 한약재 품질인증제 곧 규격화는 급하게 갈 사항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수입이나 수출관련 규제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세계적 추세. 수급조질품목으로 묶여있지만 식품으로 들여와서 의약품으로 전용문제가 심각하다. 때문에 한약재를 농산물로 주장해서 우리 것이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국내 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국산이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약재 품질관리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88%,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90%로, 다소 비싸더라도 국산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92%로 조사됐다고 소개. 국산한약재가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품질관리 된다면 수입산과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이 입증됐다.

미국 LA 천하제일 유통에서는 국산당귀가 1만8천원에 중국당귀 상품이 2만8천원에 전시되고 있다. 우리도 고품질로 생산, 품질보증해서 세계시장에 내놓자. 지금 복지부에서는 우수한약개발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2~3년 이내에 결과 나올 것이다.

### 국산약재 유통가공시설 정부지원 필요

문) 국산한약재의 품질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약재 저온창고가 없어 홍수출하가 되고 있는 점. 채취 후 최단시간 안에 가공해야 품질도 좋지만 생산단계보다 가공 유통과정에서 농약 및 중금속이 더 많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답) 이제는 농가 개인별 경쟁력을 갖추기는 한계가 있고 지역의 단체가 중심이 돼 일괄 가공 후 소비기관으로 넘기는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설 좋은 곳에 위탁가공하는 안도 고려해볼 만 하다.

복지부에서는 BTL(민간 자본유치사업) 사업 방식으로 각 도별 1곳 씩을 선정 300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 쓰는 민간투자방식이며, 민간이 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 권한을 갖는다. 산지별 대단위 가공유통시설이 조성되면 한약재 주산단지조성 및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표준제조공정에 의해 식품용과 의약품용을 구분 가공하도록 함으로서 한약재 유통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생물 형태로도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어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중간유통업자가 끼어드는 것은 지양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가 이같은 BTL식 가공유통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GAP 약용작물, 복지부

### 품질인증 받을 수 있나?

문) 복지부가 우수한약품질인증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GAP(우수농산물인증제도)에 의해 생산된 약용작물도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나?

답) 지난해 의약품으로서 한약재 수입은 약 30%인 반면 약 70%의 한약재가 농산물 및 식품으로 수입돼 왔다. 최근의 웰빙 추세와는 정반대로 한약재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추된 한약재 이미지 다시 복원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급선무다. 농림부 복지부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관련단체들도 서로의 기득권을 위해 싸울 시간이 없다. 서로 힘을 합쳐 살아남아야 한다.

농림부 GAP 인증을 받은 약용작물은 안전성은 확보된 것. 의약품원료인 한약재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약재의유효성 문제가 보완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림부와 식약청이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리·문정희)

### 인사


#### [승인]

△경북 대구 동구(갑) 공판장장 김창석(2005. 7.13일부), △충남 천안(갑) 지부장 박찬균, △충남 천안(을) 지부장 한상복(2005.8.8일부), △전북 정읍시 지부장 이계두(2005.9.16일부)

#### [해임]

△전북 장수군 공판장장 이광휘, △전북 전주 덕진구 지부장 이진(2005.7.1일부)

## 강원도 자연산 **헛개나무** 열매 판매



**간이 건강해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

헛개나무는 본초강목, 중약대사전 등에 지방간의 독성해소와 구취제거 등 혈중 알코올 농도저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 생약협회 의정부공판장 031)841-4839, 842-8468